

※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3)

소희: 30분이나 지났는데 왜 이렇게 안 오지?
은주: 미안해!
소희: 왜 이렇게 늦었니?
은주: 정말 미안해! 부모님 심부름을 하고 오느라 늦었어.
소희: 그래, 다음부터 약속 시간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
너한테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했잖아.
은주: 걱정해 줘서 고마워, 소희야!

1 은주가 소희에게 미안하다고 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 ① 은주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 ② 소희가 약속 시간에 늦어서
- ③ 은주가 소희의 생일을 잊어버려서
- ④ 은주가 소희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아서
- ⑤ 은주가 소희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해서

2 밑줄 그은 말을 들은 소희의 반응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은주의 말을 무시했다.
- ② 은주의 말을 믿지 않았다.
- ③ 은주를 다그치며 비난했다.
- ④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 ⑤ 은주의 처지를 이해해 주었다.

3 소희는 은주와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태일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태일이 소희의 말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쓰시오.

소희: 이런 일이 있었어.
태일: 아, 그랬구나! 그럴 때에는 나라도 화났을 거야.

4 다음과 같은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말투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짹에게 색연필을 빌려 쓰다가 부러뜨려서 미안하다고 할 때

- ① 웃는 표정과 빠른 목소리
- ② 진지한 표정과 조용한 목소리
- ③ 우울한 표정과 차분한 목소리
- ④ 지루해하는 표정과 졸린 목소리
- ⑤ 답답한 표정과 억울해하는 목소리

5 다음에서 대화의 특성을 잘못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서현: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를 직접 보면서 말을 주고받아.
우준: 표정, 몸짓, 말투에 따라 기분이나 생각을 짐작할 수 있지.
교진: 대화를 할 때에는 상대의 마음을 살피지 말고 내 마음만 살피며 말해야 해.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7)

(가) 우리는 칭찬받기를 좋아하는 것에 비해 누군가를 칭찬하는 일에는 인색한 편이에요. 또 칭찬을 한다고 하지만 칭찬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칭찬이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해야 해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두루뭉술하게 칭찬하지 말고 칭찬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말하는 것이 좋아요.

(나) 마지막으로 가능성을 키워 주는 칭찬을 할 수 있으면 더욱 좋아요. 누군가를 칭찬할 때 지금의 능력보다 잠재 능력을 보고 칭찬할 수 있어요. 현재 걸으려 드려난 결과는 미약하고 부족해 보이더라도 앞으로의 가능성을 보고 “미술에 소질이 많은 것 같아. 앞으로 계속 노력한다면 훌륭한 화가가 될 수 있을 거야.”와 같이 칭찬하면 상대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꿈을 실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6 칭찬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칭찬해야 합니까? ()

- ① 건성으로 칭찬한다.
- ② 자기 자신을 칭찬한다.
- ③ 분명하고 자세하게 칭찬한다.
- ④ 나쁜 점도 함께 말하며 칭찬한다.
- ⑤ 칭찬하는 내용이 드러나지 않게 한다.

7 다음 중 가능성을 키워주는 칭찬으로 알맞은 것을 찾아 ○표를 하시오.

- (1)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더니 시험을 잘 봤구나!” ()
- (2) “너는 글을 잘 쓰는 것 같아. 앞으로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 거야.” ()
- (3) “네가 하루도 소홀하지 않고 시간표 당번 역할을 잘하는 것을 보니 참 성실한 것 같아.” ()

※ 다음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8~9)

주민: 길을 잃고 헤매는 할머니를 가시는 곳까지 모셔다드리느라 그랬지. 우리 아빠께서는 길에서 애들끼리 싸우는 것을 보면 꼭 가서 말리셔야 하고, 누구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꼭 도와주셔야 해. 무관심은 나쁜 것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민재: (감탄하며) 우아, 너희 아빠 참 대단하시다.

주민: 대단하다고? 글썄, 처음에 난 모든 사람이 그런 줄 알았어. 나중에 우리 아빠께서 좀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됐지.

민재: (궁금하다는 듯이) 그게 싫었니?

주민: 응, 솔직히 우리 아빠께서 나한테만 관심을 보여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 남을 돕는다고 뛰어다니시다가 정작 나랑 할 일을 하시지 못한 적이 꽤 많았으니까.

민재: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8 주민이 아버지의 평소 모습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주민이를 엄하게 대하신다.
- ② 애들끼리 싸우는 것을 말리신다.
- ③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신다.
- ④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신다.
- ⑤ 길을 잃고 헤매는 할머니를 도와드린다.

9 민재가 밑줄 그은 부분처럼 말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주민이의 말에 공감했기 때문에
- ② 주민이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 ③ 주민이와의 대화가 지루했기 때문에
- ④ 주민이 아버지를 존경하고 있기 때문에
- ⑤ 주민이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10 다음과 같은 친구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쓰시오.

어떻게 하면 컴퓨터 게임을 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요?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1~3)

(가) 아우내 장터에 아침이 밝았다. 새벽부터 장터에 모여든 사람들은 여느 때보다 몇 곱절이나 되었다. 독립 만세를 부르려고 모인 사람이 대부분이었다.

오후 1시, 유관순은 많은 사람 앞에서 외쳤다.

“여러분, 반만년의 역사를 지닌 우리 겨레가 불행하게도 일본에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이제 나라를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두 일어나 독립을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세를 부릅시다. 대한 독립 만세를!”

(나) 깜짝 놀라 달려온 일본 헌병들은 총과 칼을 휘두르면서 평화롭게 독립 만세를 부르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막았다.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다. 유관순의 아버지와 어머니도 일본 헌병의 손에 쓰러지고 말았다. 사람들은 흩어지고, 일본 헌병들은 유관순을 찾느라고 온 마을을 샅샅이 뒤졌다. 유관순은 부모님의 시신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피할 수밖에 없었다.

11 유관순과 많은 사람들이 아우내 장터에 모인 까닭은 무엇입니까? ()

- ① 물건을 사고팔기 위해서
- ② 서로 인사를 나누기 위해서
- ③ 독립 만세를 부르기 위해서
- ④ 일본 헌병을 환영하기 위해서
- ⑤ 일본 헌병을 공격하기 위해서

12 부모님의 시신을 두고 피해야 했던 유관순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

- ① 신나고 즐거웠을 것이다.
- ② 슬프고 화가 났을 것이다.
- ③ 자랑스럽고 뿌듯했을 것이다.
- ④ 안심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다.
- ⑤ 일본을 돕지 못해 안타까웠을 것이다.

13 이 글을 읽고 떠오르는 경험을 한 가지만 쓰시오.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4~5)

(가) 이러다 지각하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학교가 우리 앞으로 온다

 춤고 배고파 죽겠다 싶을 때, 있는 힘껏 길을 잡아당기면 출렁출렁, 저녁을 차린 우리 집이 버스 정류장 앞으로 온다

(나) 할머니 아픈 허리는 왜 뱀아야 시원할까요?

 아이쿠! 아이쿠! 하면서도 “꼭꼭 뱀아라.” 하십니다

 그래도 나는 겁이 나 자근자근 뱀습니다.

14 시 (가), (나)와 관련된 경험을 알맞게 말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정연: 시 (가)를 읽고 밥을 많이 먹은 후 소화가 안 돼서 힘들었던 때가 생각났어.

우진: 시 (나)를 읽고 할머니께 크게 꾸중을 듣고 섭섭해 했던 경험이 떠올랐어.

지우: 시 (가)를 읽고 늦잠을 자서 학교에 빨리 가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가 생각났어.

유라: 시 (나)를 읽고 어머니께서 내가 한 말을 믿어주지 않으셔서 속상했던 기억이 났어.

()

15 시와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시를 읽으면 좋은 점은 무엇입니까? ()

- ① 시를 잘 이해할 수 없다.
- ② 시의 내용을 모두 외울 수 있다.
- ③ 시 속 인물에게 몰입할 수 있다.
- ④ 시를 쓴 시인의 생김새를 알 수 있다.
- ⑤ 시에 나온 어려운 낱말의 뜻을 정확히 알 수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6~8)

“우, 내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누가 나 대신 학원에 좀 다녀 줬으면!”

수일이가 결상 다리를 발로 차며 말했다. 결상은 아무렇지도 않고 발바닥만 아팠다.

“정말 네가 들어있으면 좋겠어?”

“그래!”

“그럼 너를 하나 더 만들면 되지.”

“하나 더? 어떻게?”

“말해 주면 나한테도 가끔 공을 물어뜯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거지?”

“그래. 못 쓰는 공 너 하나 줄게.”

“어떻게 하느냐 하면, 네 손톱을 깎아서 쥐한테 먹이는 거야.”

“뭐어?”

“그러면 그 쥐가 너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바뀔지 몰라.”

16 수일이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공을 잘 차게 되는 것
- ② 수일이가 들어 되는 것
- ③ 학원을 더 많이 다니는 것
- ④ 쥐에게 자신의 손톱을 먹이는 것
- ⑤ 손톱이 더 이상 길어지지 않는 것

17 수일이를 하나 더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

- ① 쥐
- ② 고양이
- ③ 수일이의 옷
- ④ 수일이의 손톱
- ⑤ 수일이의 책가방

18 이 글 속 수일이의 경험과 비슷한 경험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학원에 가기 싫어했던 경험
- ② 강아지가 아플 때 밤새도록 간호한 경험
- ③ 손톱 먹는 쥐에 대한 이야기책을 읽은 경험
- ④ 할머니께 손톱 먹는 쥐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경험
- ⑤ 자기와 똑같이 생긴 누군가가 자기 대신에 자기 일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경험

※ 다음 시를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9~10)

꽃이 얼굴을 내밀었다

내가 먼저 본 줄 알았지만

봄이 쫓아가던 길목에서

내가 보아 주기를 날마다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먼저 말 건 줄 알았지만

바람과 인사하고 햇살과 인사하며

날마다 내게 말을 걸고 있었다

내가 먼저 웃어 준 줄 알았지만

떨어질 꽃잎도 지켜 내며

나를 향해 더 많이 활짝 웃고 있었다

내가 더 나중에 보아서 미안하다.

19 이 시를 읽고 떠오르는 장면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

- ① 꽃을 보고 있는 아이의 모습
- ② 친구를 그리워하는 아이의 모습
- ③ 친구에게 용서를 비는 아이의 모습
- ④ 추위에 떨며 집으로 돌아가는 아이의 모습
- ⑤ 시원한 나무 그늘에 앉아 수박을 먹는 아이의 모습

20 이 시 속 말하는 이가 꽃에게 미안하다고 한 까닭은 무엇인지 쓰세요.
